문 없는 문에 든 청년, 자신을 만나다

동국대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 참관기

건학 120주년 기념 프로그램
'텐트 무문관'서 20여 명 정진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 마주해
정도 스님 "자신 만나는 계기"


동국대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에 참석한 학생이 수행을 시작하며 웃어 보이고 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5월의 오전, 바깥 세상은 한층 밝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 조용히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침묵의 문'을 선택한 청년들이 있었다.

서울 동국대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홀에는 작은 텐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20여 개의 텐트.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1평 남짓한 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무문관(無門關)', 이름 그대로 문이 없는 문이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 현장은 시작 전부터 남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각자의 텐트로 향했다. 그곳에 가져온 개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일상의 연장선에 늘 붙어 있던 화면과 알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낯선 '정적'이 채웠다.

수행은 도서관 1층에서 입재식으로 시작됐다. 정각원장 제정 스님은 "마음은 늘 밖으로 향하려 한다"고 짚으며 "내적인 대상을 삼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호흡 지도는 단순했지만 분명했다.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수행의 핵심이 이 짧은 흐름 안에 담겨 있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정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을 따라 각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외부 세계는 완전히 차단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정적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느껴진다.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몸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호흡이 들리고, 앉아 있는 몸이 느껴지고, 그동안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의 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날 수행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선 경험이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분산되던 주의를 한 점으로 모으고, 자신과 직접 마주하는 시간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참가자들의 소감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그대로 드러났다.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됐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청년들이 놓여 있는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 이번 수행은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정도 스님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한 시대"라며 "이번 수행이 스스로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문관 수행은 본래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채 수행에 몰입하는 전통 수행 방식이다. 이를 하루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이번 시도는 '가능한 수행'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현대의 삶 속에서도 수행은 실현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청년들이 직접 몸으로 확인한 셈이다.

짧은 하루였지만, 텐트 안에서 마주한 시간은 각자의 삶으로 이어진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문 아닌 문'과 마주한다. 그 경계 앞에서 멈추고,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는 일.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답을 찾는 길일지도 모른다.

문이 없기에, 언제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수행. 이번 '청년 무문관'은 그 첫 문을 조용히 열어 보였다.

박훈 동국대 선학과 박사수료생

동국대일산병원 "따뜻한 의료 실천하겠습니다"

5월 19일 강당서 봉축법회
돈관 스님 "구성원에 감사"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5월 19일 5층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법어를 설하는 모습.

동국대일산불교병원(원장 백용해)이 약사여래 서원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났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5월 19일 5층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이해원 의료원장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신 이유를 설명했다. 부처님의 탄생게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의 의미를 되짚은 돈관 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탄생게는 인류 최초 인권 선언"이라고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간 존중 사상을 부처님이 실천해 주신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원을 지켜준 모든 구성원에 감사하다"고 치하하고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가 의료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광명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일산불교병원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하며 환자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곳이며, 이는 곧 부처님의 자비행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립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의료를 실천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 교직원들은 곽범석 일산불교병원 연우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환우들의 쾌유와 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연우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우를 위해 일산불교병원과 한방병원에 수건 400장을 전달했다.

고양=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키르기스스탄서 고대 불교 유적 발견

키·일 탐사대, 악베심 유적서
唐 건축 양식…'대운사' 추정


악베심 유적지에서 발굴된 불교 사원 유구.
사진 출처=더 타임즈 오브 센트럴 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문화부는 키르기스스탄 북부의 고대 실크로드 도시인 악베심 유적에서 7~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사원 유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실크로드 교역과 불교 전파의 중요한 증거인 사원 유적의 발굴에 대해 '더 타임즈 오브 센트럴 아시아' 등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중세 교역도시로 유명한 키르기스스탄의 토크목에서 남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악베심 유적은 5~8세기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였다.

이곳은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에 쇄엽성(碎葉城)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당나라 시인 이백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여러 차례 전란을 겪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인근의 또 다른 교역도시인 발라사군이 부상하면서 버려졌다.

이번 발견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온 키·일 공동 연구단의 악베심 유적발굴 조사에서 드러났다.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원 소속 바키트 아마바예바 교수와 일본 테이쿄 대학의 야마우치 카즈야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은 이달 초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했고, 앞선 2007년 발굴된 불교 사원지 부근에서 새로운 사원 유구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기단, 경사로, 계단 등을 발굴했으며 이러한 건축 요소들이 중국 당나라 시대 사원 건축 양식의 특징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당시 기록 등을 참조해 이 유구가 8세기경까지 악베심에 존속했던 사찰인 대운사(大雲寺)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연구진은 발굴이 진행중인 지역을 역사문화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봉녕사, 수원 구치소 봉축법요식

5월 19일…200여 명 참석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5월 19일 수원구치소 내 불교법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구치소 법당 교정위원 선정 스님과 지도법사 율감 성담 스님, 교수 효석 스님, 성진 스님, 한태환 수원구치소 소장, 재소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소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봉녕사는 앞으로도 자비나눔과 포교 원력을 이어가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태환 수원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봉녕사는 재소자들에게 떡 2500인분과 함께 평소에도 꾸준히 보시해 온 사경책과 단주를 선물했다.

김내영 기자

